

造語・統辭論的 側面에서

安 秉 禧

1. 이 토론회에서 筆者는 국어의 文字化와 관련된 문제를 造語・統辭論的인 側面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거창한 과제일 뿐 아니라, 현재의 筆者에게는 그것을 다룰 준비가 전혀 없다. 다만 한글 創制 以後 행하여진 한글에 의한 국어의 表記에 대하여 주어진 側面에서 역사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간접적이고 迂迴的이지만, 主題에 接近하여 보려고 한다.

2. 한글은 創制 直後부터 그 普及과 表記에서 漢字와 漢文의 도움으로 행하여졌다. 새 文字에 대한 解説書인 訓民正音解例(1446)가 漢文으로 되어 있고, 最初의 한글에 의한 國語文章의 表記가 등장한 龍飛御天歌(1447)도 國漢文混用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장황한 漢文解説이 있는 것이다. 잇달아 刊行된, 國漢文混用인 술한 諺解書도 漢字와 漢文의 도움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직 月印千江之曲(1447)이 例外여서 한글專用의 文獻이라 하겠는데, 여기에도 漢字語에는 반드시 漢字의 夾註가 있다. 새로 만들어진 文字의 보급에 이미 알려진 文字의 도움을 입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表記에 있어서도 한글과 漢字가 背他的인 아니라 共存하고 있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글의 國語表記는 그 形式뿐 아니라 內容에 있어서도 漢字 내지 漢文의 影響을 받았다. 龍飛御天歌를 비롯하여 初期의 한글 表記는 거의 모두 諺解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諺解樣式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諺解에서 漢文의 제약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한 原典이 두 번 以上 諺解된 경우,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意譯과 直譯으로 나뉘는데, 直譯인 諺解는 漢字와 漢文의 影響이 훨씬 크다. 가령 法華經, 小學, 老乞大 등이 그러한 文獻이다. 直譯인 諺解書에서는 漢字語가 많이 나타나고, ‘씨(以), 히여곰(使)’ 등등 翻譯借用語가 많다. 또한 敬語法의 使用도 嚴格하지 못하다. 意譯인 諺解도 그 영향은 있는데, 가령 翻譯借用語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諺解에 나타난 漢文의 影響은 筆者의 ‘中世國語 研究資料의 性格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 9:1을 참조.) 그러나 近代에 오면서 國漢文混用과 한글 專用인 文學作品이 쏟아지면서 그러한 漢字・漢文의 영향은 一部 諺解書에 국한되었다.

3. 漢字와 漢文의 도움과 영향을 받지만, 한글에 의한 表記에서는 국어의 形態 및 統辭의 單位에 대한 意識이 초기부터 없는 것은 아니었다. 龍飛御天歌의 句讀點과 基本形態의 表記, 月印千江之曲의 語幹・語尾의 分離와 基本形態의 表記 및 漢字夾註와 合成語의 表記에 나타난 語源表示가 그것이다. (이 중 語幹・語尾의 分離와 基本形態의 表記에 대하여는 許 雄, ‘李朝初期 文獻의 表記法에 나타난 文法意識’ 국어국문학 3을 참조.) 다음과 같이 月印千江之曲의 지나친 語源表示는 달리 類例가 없는 일이다.

(1) 合成語의 語源表示

날달(日月, 17)——나달(杜諺)

아들님(31, 48)——아드님(龍歌)

들넝긔(83)——드넝光(月釋)

(2) 漢字의 夾註

량兩뽀分(42, 227), 세분分(229)——훈부니(龍歌), 세분(月釋)

삼三동(247)——삼동(月釋)

긔欺롱弄(130)——긔롱(法華, 內訓)

대체로 한글表記는 表記態度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16世紀初의 續三綱行實圖가 15世紀 中葉의 文獻과 같은 表記法을 보이는 것이 그 著名한 例다. 그런데 다같이 世宗이 지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月印千江之曲의 表記가 龍飛御天歌와 다른 이유는 月印千江之曲이 한글 專用을 採擇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어떻든, 이러한 形態 및 統辭의 單位에 대한 意識은 그 뒤로 별로 진전이 없었다. 한글 專用인 地藏經諺解(1765)의 句讀點을 제외하면, 한글에 의한 國語의 表記는 오히려 音素的 體系로 始終하였던 것이다. 19世紀 後半 語文整理運動과 함께 많은 論難을 거쳐 現代의 正書法으로 이르게 되었다. 이 正書法의 基本精神이 月印千江之曲의 그것에 相通하는 바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한글 專用을 背景으로 갖고 있는 점은 吟味할 만한 일이다.

151—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과

(접수 : 1977. 11. 17)